

나눔 시간 중, 땡~ 9시30분! 본당 일치와 화합, 가정과 개인 성화를 위한 기도와 강복 참여



시흥4동 성당 남성구역분과에서는 지난 12월 14일(금) 그리스도왕 홀에서 본당 신자 180여명 참여한 가운데 “일치와 화합을 위한 일일 호프” 행사를 가졌다.

남, 여 구역장들은 본당 전 공동체가 일치와 화합을 위한 나눔과 대화의 일일 호프 행사를 금년 9월 월례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3개월 간 기획과 준비로 많은 교우들에게 홍보한 결과 야간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네를 뺀 예상 참석 200명분의 주류와 음식을 준비하였으나 각종 음식이 동이 났다.

몇 년 동안 처음으로 많은 교우들이 한자리에 서로의 대화와 나눔을 가지며 호프와 동동 주 잔을 들고 곳곳에서 “위하여!”, 합성소리와 어느 좌석에서는 대중가요를 부르며 흥겹던 순간에 참석한 교우들의 핸드폰에서 땡!

알림 9시30분, 일치와 화합, 가정성화와 개인성화에 지향을 두는 기도 알람소리에 맞나게 드시고 있던 음식을 두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성호경과 주모경을 바치고, 주임신부님의 강복과 함께 우렁찬 후송이 나왔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전임 사목회장들은 ‘오늘 밤 이런 행사로 전 신자가 일치와 화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며 본당 입구에서부터 호화찬란하게 밝은 성탄차림의 첫 인상과 행사에 참석하신 교우들의 얼굴이 새롭게 무엇을 해 보겠다는 의지와 일치감이 넘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다.

특히 저녁미사를 마치고 한꺼번에 모여든 교우들에게 청소년분과 청년연합회는 주문과 음식서빙에 지하계단을 숨 가쁘게 오르내리며 부모와 누이들에게 대하듯이 봉사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오늘 같은 행사가 아니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활기가 차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의 숨은 공로자는 여성구역분과의 각 구역장과 반장들의 헌신적 봉사정신이었다. 시골부자 집 큰 도령님의 손님맞이 혼인잔치 같은 음식 준비하는 식자재 구입과 섭외로 행사 전일부터 눈 코 뜰 사이가 없는 고강도의 근로봉사였다.

이어 갑자기 몰려드는 음식 메뉴 주문지에 눈 돌릴 수 없이 분주한 손놀림으로 당황한 봉사자들을 지켜보시던 주임신부님께서 옆에서 메뉴 주문지를 순서대로 음식차림을 도와주시는 모습에서도, 또 음식을 제공하는 주방에서도 일치와 화합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가 있었다.



